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건축의 본보기거리, 로동당 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2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며 우리 인민의 문명의 발전속도, 나라의 힘, 당의 정책이 건설에서 직관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민협동작전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제기일에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자들이 공사장전역에서 기록되고있는 성과를 계속 확대하여 대상별, 단계별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건설력량을 증강해주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무한히 고무된 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총공격전을 벌임으로써 미래과학자거리 1단계 건설을 올해 태양절전으로 끝낸데 이어 2단계 건설도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완공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시고 교육자, 과학자들을 참다운 애국가, 혁명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덕이 낳은 사랑의 기념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바라보시며 불수록 멋있고 웅장화려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사상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리,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희한한 거



리, 문명개화기가 더욱 활짝 꽃피어나는 시대에 수도 평양에 펼쳐진 우리 식의 특색있는 거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마다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그대로 응축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150여개의 봉사망들을 갖춘 웅근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운다는것은 기존 건설공법으로써는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미래과학자거리를 보니 10년을 1년으로 앞당기는 우리 조국이 10년후면 더욱 몰라보게 전변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충성의

다리에서 양각다리까지의 대동강호안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묶음식살림집들이 조화롭게 들어앉았다고 하시면서 건물의 외벽을 갖가지 색타일로 마감하고 지붕형식도 새롭고 특색있게 시공하니 미래과학자거리가 천연색거리로 되었다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이 천사만사인 국사중에 과학기술발전을 어떻게 중시하고있으며 과학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없는 인민의 락원, 강성국가를 건설해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알려면 미래과학자거리에 와보면 될것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선경거리가 일떠섬으로써 우리 조국의 문명의 중심인 혁명의 수도 평양시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가장 경사스

러운 혁명적명절로 뜻깊게 경축한 시기에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일떠선것은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의 정당성과 자립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되며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서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계에 과시한 사변으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위해 조선인민군 제521사단을 조직하였는데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본보기답게 초고층살림집을 비롯한 제일 방대한 공사량을 맡아 《단숨에》의 공격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우리 인민군대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수도건설부문과 성, 중앙기관 돌격대를 비롯한 건설에 참가한 단위들과 지원자들도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의 질과 속도를 보장함으로써 멋쟁이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치하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설력사에 전례없는 비상한 속도로 솟아오른 미래과학자거리의 모든 건축물들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며 앞날에 대한 락관을 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소중한것을 자기식으로 창조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땀을 흘려온 일떠세운 선군조선의 긍지높은 창조물, 요소요소마다에 애국심이 뜨겁게 어려있는 고귀한 결정체라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가한 부대들과 단위들, 건설자들, 지원자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미래과학자거리 준공과 관련한 지시를 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합동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어머니생일》, 경음악과 노래편곡 《조선로동당 만세》, 남성독창과 합창 《당을 노래하노라》, 남성합창 《조선의 모습》, 기악과 노래 《사랑하노라》,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여성중창 《보란듯이》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는 새로 창작형상한 남성3중창과 합창 《조선로동당찬가》, 남성합창 《빛나라 태양의 그 이름》, 《조선의 진군가》,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우리의 김정은동지》, 《뵈고싶습니다》, 《그리움은 나의 행복》, 《운명의 손길》,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 《우리 당 영원히 따르리》와 같은 새 노래들을 훌륭히 창작형상하여 무

대에 올렸다. 공연은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관현악과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최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은 종곡 《어머니생일》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솟구치는 격정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인민에 대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이 맥박치고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대를 이어 충정다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청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2중창과 방창 《장군님 생각》, 트럼베트를 위한 경음악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중창 《사랑하노라》, 《조선의 모습》, 경음악 《사회주의 지기세》, 여성4중창과 방창 《영원한 메아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여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행군길》, 《어머니당의 품》, 《어머니의 목소리》, 《그대는 어머니》,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의 곡목들을 펼친 기악과 노래편곡 《눈

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는 공연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새롭게 창조형상된 여성3중창과 방창 《당이어 그대 있기에》, 여성3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은 관람자들의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공연은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 《천리라도 만리라도》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의 나팔수, 사상적기수가 되어 당중앙의 의도한대로 백두산의 청신한 냇이 어리여있는 악단의 이름을 예술활동실천으로 빛내이며 주체문화예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해가는 청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지하전동차를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했다고 하시면서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의 형태와 색깔, 기술적특성, 의장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하전동차가 정말 멋있다고 하시면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특성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형태와 색깔을 잘 선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와 련관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이 합심하여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가 운행을 시작하면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교통운수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하전동차를 비롯한 대중교통수단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내는것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계절생산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기업소를 돌아보면서 과업을 준대로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하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지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해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끓어번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로

동계급의 투쟁분배가 어려웠던 지하전동차는 자신에게 큰 힘을 안겨주었다고 하시면서 당에 무한히 충직하고 슬기로운 우리의 로동계급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기에 마음은 든든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후터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하전동차개발자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나이와 같은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우리 식의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의 10월이 더 빛나게 되었고 하시면서 고귀한 땀방울로 당과 인민에게 드리는 훌륭한 열매를 마련한 기업소와 련관부문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에게 조선로동당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본사기자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은

령도자의 좌우명- 인민은 하늘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연설내용은 자자구구 인민 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조선로동당의 70년사를 총화하면서 그이께서는 당이 붉은 기폭에 마치고 낮과 붓을 아로새길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지지 본적이 없으며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다고 하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혁명을 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인민 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력사와 자랑찬 업적이 있고 불멸성이 있는 것이다.

인민은 하늘이다,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좌우명이다.

무릇 위인에 대하여 알려면 그의 좌우명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위인의 좌우명은 그의 모든 활동에 관통되는 신조와 인격을 보여준다. 동서고금 력대의

명인들은 다 자기의 좌우명이 있었다. 지칠 줄 모르는 투쟁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근로인민의 자주적운명개척과 피압박민족해방위업에 헌신한 위인도 있고 애국을 좌우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공헌한 위인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기록한 위인사의 갈피에는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 위인, 명사는 없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인덕정치에 의해 오늘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가 인민중시, 인민복무의 구호로 되고있으며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시책과 혜택은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 인민구

장, 룡라인민체육공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연풍과학자휴양소,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등을 비롯한 모든 건설물, 창조물들에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헌신의 세계가 어려어 있다.

예로부터 민심을 얻어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일러왔다. 백성을 돌보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이루어지는 정치를 가장 성공적인 정치로 보았다.

그러나 력사적으로 이러한 견해가 정치에 구현된적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이민위천의 리념과 정치경륜에 의하여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

고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치게 흐르고있는 것이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일군들이 인민의 머리위에 군림한 판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복무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당의 로선과 국가정책에 담아야 하고 인민들이 군중대회같은데서만 아니라 외진 섬이나 깊은 산골에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 로동당당세를 부르도록 해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의도이다.

어머니사랑은 늘 자애롭고 다심하고 부드럽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무한한 헌신적이고 그 어떤 보수나 대가를 원하지 않으며 오로지 사랑을 기울이는데

서 기쁨과 보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사랑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하신 인민들을 수령님들을 모시듯 더 잘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이고 그래서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가 자기의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어머니당, 어머니조국으로서의 본태를 잘 살려나가도록 하시는데 있다.

두해전 4월 어느날 일군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도 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피주어야 한다,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우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찾자리에 놓고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우리 인민이 제일 위대한 인민이며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불타는 강도 서슴없이 견고하고 험한 가시밭도 웃으며 헤쳐나가는 인민의 수호자,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려고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그이의 사랑과 헌신에 의해 인민의 안녕과 행복이 담보되고 강성변영의 미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이야말로 국사를 론하는 정치가이다, 조선에 특권층이 있다면 그는 인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해서는 선교가 필요 없다. 공화국은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된 나라, 예수가 꿈꾸던 리상사회이며 주체의 락원이 지구촌에 생겨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다.》

조선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소감이다.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는 공화국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나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나라다.

본사기자 리 설



새 집들이의 기쁨과 감격속에 노래부르며 춤을 추는 라선시 피해지역 주민들

애민헌신의 길에서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세해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완공을 앞둔 류경원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 현관홀을 둘러보신 다음 중앙홀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곳을 휴식홀로 꾸리려고 한다는것을 아신 원수님께서서는 극장이 아니므로 중앙홀에 주단을 깔기는 곤란하다고 하시며 공간에 기단을 형성하고 돌로 조각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며 매대도 만들어놓고 손님들에게 청량음료같은것을 봉사해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었다. 휴식홀인 만큼 의자도 놓도록 할데 대하여 이 르시였다.

이후 그이께서는 건식한중칸으로 길을 옮기시였다. 한중칸을 둘러막은 유리벽체도 만져보시면서 그이께서는 유리이음짚에 넓은 띠를 대고 씨리곤을 쏘아넣으면 장식도 되고 열손실도 막을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육조물 소독과 려과와 관련한 대책적문제도 세워주시였다. 소금한중칸, 소나무한중칸, 종유석한중칸도 일일이 돌아

보신 그이께서는 한중을 앉아서 편히 할수 있게 의자를 놓도록 할데 대해 지시하시였다. 한중칸휴식홀의 의자를 보시고는 의자에는 일 반천을 씌우지 말고 소독수로 닦아 낼수 있게 수지물을 입힌 천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고, 대중목욕탕같은데는 호화로운 형식을 취하는것 보다는 위생성을 보장하는것이 첫째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병에 걸릴수 있다고 하시였다. 인민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가르치심 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안실과 령실, 리발실의 소독수와 가족목욕탕접수관벽에 게시된 목욕탕리용질서알림판에 이르기까지 불비한 요소들을 바로 잡도록 지적하시였다.

그날 류경원시공정형을 구석구석 다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18일 남조선의 한 언론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돛경축행사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제1위원장님이 25분 동안 진행한 연설에서 (인민)을 97번이나 언급했다.》고 소개하였다.

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주목하고 대서특필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연설내내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70년력사를 총화하는 자리에서 우리 당의 력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이라고 모든 영광을 인민에게 안겨주신 조선의 령도자.

인민에 대한 고마움을 피 령한 말씀으로 시작되어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는 내용으로 절정을 이룬 연설은 우리모두 위대

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라는 격동적인 사랑의 호소로 끝을 맺었다.

세상에 이런 연설이 또 있을손가. 인민, 인민, 또 인민.

그이의 온넋과 심중에 불타는 일념과 생각은 오직 인민, 그 인민에 대한 절대복무의 정신임을 연설을 들으면서 온몸이 찌릿하게 느

는 한 인터넷홈페이지에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연설내내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년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 인민의 장엄한 력사에 대해 이야기하시였다. ...세계의 곳곳에 자신의 리익과 또 다른 집단의 리익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대통령이나 왕은 찾아볼수 있지만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

치는 최고지도자의 삶은 오직 북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연설을 들은 세계는 이제 보게 될것이다.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인민과 함께 강성변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건설해가는 전무후무한 력사가 열릴것이다.》라는 글이 실렸던 것이다.

인민을 무려 97번이나 불러주시며 하늘높이 떠받드신 그분의 연설에서 온 세계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철학을 알게 되었다. 당도 국가도 인민을 떠나서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숭고한 정치경륜이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10월의 광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가꾸어져가는 사회주의문명국, 천하제일강국은 인민의 으뜸가는 천국, 락원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는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정치철학을 알게 되었다.

당도 국가도 인민을 떠나서는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만이 그 생명력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고 숭고한 정치경륜이다.

하기에 그분께서는 10월의 광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조선로동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

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신것 아니겠는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가꾸어져가는 사회주의문명국, 천하제일강국은 인민의 으뜸가는 천국, 락원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리라라는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재미동포 리경준

97번이나 불러주신 《인민》

인민들의 식탁위에 풍겨나는 바다향기



지금 공화국에서는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는 속에 어디 가나 사회주의바다향기가 진하게 풍기고있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각종 물고기를 사가며 기쁨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풍성하게 먹이시려고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날과 달들이 뜨겁게 어리어온다.

인민들의 식생활수준을 높이는 데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몇해 어간에만도 이 부문사업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시었다.

지난해 11월 인민군대의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이룩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왔다시며 어로공들의 성과를 치하해주신 원수님께서서는 하 룹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회 한한 풍경을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물고기대풍을 마련해 놓고보니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만고풍상이 가슴에 마쳐온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평생 조국의 산과 들을 황금산, 황금벌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의 바다도 황금해로 만드는것이 우리의 숭고한 의무라고 하시며 올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유하여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단풍2-04》호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년간 룹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만선의 배고동소리 선창 안 물고기 가득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정녕 그날의 원수님의 모습은 련년에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시던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자애로운 모습이였다. 또 어느 한 양어장과 바다가양어사업소를 찾으시며 물결반, 고기질반이라고, 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고 걱정을 터치시던, 락산의 바다에서 보내온 10여kg이나 되는 울해는 황금해의 력사가 시작된 해라고, 인민군대는 황금해력사창조의 선구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이유하여 만선기를 날리며 부두에 들어선 《단풍2-04》호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선창에 가득한 물고기를 보시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년간 룹장에서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꾼들과 어로공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 부르시어 값높은 평가도 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도 수산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높이기 위한 3대 축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년초부터 정력적인 령도의 나날들을 보내시었다.

인민군대의 어구종합공장도 현지지도하시고 새로 건설한 어부사로공장 과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 석막바다양어양어장 등도 찾으시며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가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들을 주시었다.

언제나 인민생활향상을 첫 자리에 놓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정치하에서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더욱 향상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작아도 실리가 큰 공장

얼마전 우리는 평양시 통일거리에 위치하고있는 류경생활용품공장을 찾았다.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의 사명에 맞게 건물은 무척 아담하고 산뜻하였다. 정문에 들어서서는 우리를 간병철 책임기사가 반겨맞아주며 제품진열실로 안내하였다.

《이 제품들은 모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입니다. 우리 공장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생성이 보장되고 그 질이 높다고 평가하고있습니다.》

자기 공장제품에 대한 애착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책임기사의 말이였다.

그의 말대로 과연 전시된 생활용품들은 자랑할 만 한것이였다. 여러가지 호수의 애기거저귀들이며 각종 용도의 생활용품들은 세련된 포장부터가 눈길을 끌었다. 그 질도 매우 높아 현재 상점들에서 손님들의 호평을 받으며 판매되는 제품들이였다.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애기거저귀를 평양산원에 보내주고있습니다. 평양산원에 자주 나가 산모들을 만나 얘기를

저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는데 모두들 좋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고, 평양산원에 애기거저귀와 함께 애기용품소독종이도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을 때 어머니보다도 세심한 그이의 다심하심 사랑을 가슴뜨겁게 받아안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애기어머니들이 거저귀를 갈아줄 때 젖은 수건으로 애기를 깨끗이 닦아주곤 하지만 한 나라의 령도자께서 이렇듯 작은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들릴줄 어찌 알았으랴.

깊은 감동을 안고 우리는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현장에 들어섰다. 생각보다 현장은 크지 않았다. 끝간데없이 넓은 부지에 기계들이 딱 들어찬 현장을 상상하며 들어섰건만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조용한 곳이였다.

우리의 속생각을 알아맞추기라도 한듯 《우리 공장은 생산공간이나 생산인원에 비해 실리가 큰 공장입니다.》라고 말하는 책임기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말을 립중이나 하듯이 기계들마다에서는 생활용품들이 줄지어 생산되고있었다. 고속회공정으로 되어있는 공장에서는 하루에 수십만개의 생활용

품을 생산하고있었다.

노동자들은 생활용품생산에서 중요한것은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는것임을 자각하고 생산현장의 무진화, 무균화를 철저히 실현해가고있다.

호뜻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나와 과학기술보급실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매일 저녁마다 이곳은 원격대학의 강의를 받는 졸업원들로 들어찬다고 한다.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배운 지식으로 기술혁신을 하여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가고있다는 이 공장 노동자들이다.

공장의 어느 곳에서나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늘이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일고있었다. 이 공장에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어나가려는 일념으로 질좋은 생활용품들을 생산해나가는 이 공장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뜨거운 애국열의에 있는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경생활용품공장을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는 애국공장이라고 정을 담아 불러주시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일터마다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류경생활용품공장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매일을 그려보며 공장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혜성



원대한 인민의 모습

해방정국에 울려 퍼진 《김일성장군의 노래》

지난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중군시위가 진행된 김일성광장에 울려 퍼진 력사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시종 인민에 대해 강조하시었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굽이치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된다고, 조선로동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आरो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는것

은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며 사랑하는 인민을 《위대한 인민》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신 원수님.

그 사랑과 정과 믿음에 온 나라 인민이 소리없이 울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하게 경축하는 광장에서 위대한 인민이라고 불러주시는 공화국인민은 과연 어떤 인민인가.

《통일신보》편집국은 조선로동당의 력사, 공화국의 력사에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인민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련계기사형식으로 소개해본다.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은인, 민족의 태양을 우리러 시도 지어 내고 그이께 삼가 편지도 올렸건만 인민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충정의 마음을 다 표현할수 없었다.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은덕을 마음껏 노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갈 충정의 송가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온 나라 각지에서 남녀로소, 각계각층이 뜨거운 소망을 담은 편지를 당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앞으로 수없이 보내어왔다. 그중 한 편지에는 이렇게 써여있었다.

《...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겨레의 기쁨과 만백성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여주시는 장군님의 은덕의 고마움을 목이 터지게 웨치는 만세만으로는 다 표현할수가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3천만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지어주시시오.》

인민들은 편지뿐아니라 충정의 마음을 담아 가사와 곡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해방후 태양송가창작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기대와 념원이 고 강렬한 지향이며 의지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불러갈 영원한 노래로 되게 잘 지어야 한다는 백두의 념장군 김정숙녀사의 가르치심에 고무되어,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창작자들은 송가창작에 심혈을 바치였다. 열혈시인 리찬은 송가창작을 위해 산에서 싸운 항일투사들로부터 절세위인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들을수 있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설한풍 휘쓰는 항일의 전장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백두산 줄기줄기에,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린 자옥을 새기시며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는 만고절세

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

시인은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을 대변하여 주옥같은 글줄들을 창작해냈다. 가사를 받아든 작곡가도 뿜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짧은 시일안에 곡을 완성하였다.

드디어 불멸의 혁명송가가 이 땅위에 탄생하게 되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옥(후렴)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어느날 이 노래가 창작된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노래를 내보내지 말데 대해 간곡히 이르시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양을 칭송하고 태양만을 따르려는 민

심의 격류는 계속 사뭇쳐 흘렀다.

김일성장군, 그 거룩하신 존함은 가리울수 없는 태양의 빛이였다.

만백성의마음이 합쳐져 나온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나오자마자 사시에 일파만파로 온 나라에 울려 퍼졌다. 남녀로소모두가 이 노래를 배우고 이 노래를 부르며 민주조선건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이 노래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공화국은 창조와 건설, 승리의 빛나는 력사를 आरो새겨왔다.

세월이 흘러 백년, 천년이 가도 겨레가 영원히 기억하고 심장으로 부를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이렇듯 위대한 인민이 새 조국건설의 첫 기슭에서 절세위인께 바친 매혹과 충정의 결정체였다.

본사기자 김춘경

오늘도 이 땅 어디서나, 5대 룹 방방곡곡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고있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어느 한두 작가와 작곡가에 의해 탄생한 노래가 아니다. 김일성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심장의 피가 가사가 되

고 선물이 되어 해방정국에 울려 퍼진 시대의 명곡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일제를 격멸하시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있을 때 온 겨레는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젖어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

역사교육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대한 사업이다. 후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관을 세워주지 못하면 민족의 장래가 담보될수 없다는 것은 장구한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더우기 반세기이상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올바른 역사교육문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요구로 나르고있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역사교육을 동족대결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보수당국의 범죄적책동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도입을 정식 발표한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가 비발치자 현행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있다.》느니 《복체제가 정상인듯이 서술하고있다.》느니 하며 저들의 책동을 합리화해나서고있다.

얼마전에도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어느 한 자리에서 《력사전쟁》이니, 남조선의 《국사학자는 90%가 좌파로 전향했다.》느니 하며 대결악정을 툴고있다. 케케묵은 《색갈론》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고 사회를 더욱 파썸화, 반동화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위협천만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한 후 보수집권세력이 《심각하게 편향된 력사관》을 바로잡는다는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공화국대결교육을 강화해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

기 바쁘게 다음해 고등학교들에서 사용될 력사교과서의 내용들을 동족을 헐뜯는 내용으로 수정보충할것을 강박한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있다. 당시 남조선당국이 력사교과서에 반영할것을 강요한 내용들을 보면 공화국에서 진행된 토지개혁을 헐뜯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에 대해 증상하며 《천안》호와 연평도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쳐우는 등 력사적사실을 외곡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적대적이며 도전적인것들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친일매국노들을 그 무슨 《성장》의 주역으로 미화하고 5.16군사쿠데타와 남조선일본 《협정》 체결을 너무나없이 《혁명》과 《경제발전의 계기》로 외곡하는가 하면 미국의 조선민족분렬책동을 찬양하고 《유신헌법》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것으로 정당화한 《뉴라이트교과서》교과서가 현 보수 《정권》의

검정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었다. 제반 사실들은 력사의 진실을 악랄하게 외곡하면서 신성한 교육마당까지 동족대결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려는 보수집권세력의 발악적인 책동이 과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현 사태를 그저 스쳐지나다면 나라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커다란 부정적후과가 미치게 될것이다. 민족이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야 할 때에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력사교과서를 만들어내려는것은 최악이며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못말함정 분렬의 비극속에 커가는 그들마저 동족대결의 희생물로 만들어지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리수영

친일매국노 전하인 권력 쟁탈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중에는 이전 《유신》 독재자도 있다. 그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특등일본인》이 되려고 이름까지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본군장교가 되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친일주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역도가 미국의 조종밑에 5.16군사쿠데타를 감행하고 권력을 나누어 채였을 때 제일 기뻐한것은 일본의 군국주의광신자들이였다. 당시 일본우익정계는 《오카모도가 서울을 점령했다. 만세!》라고 탄성을 지르기가까지 하였다. 친일이 빠속까지 물젼은 《유신》독재자는 집권기간 《옛날의 일은 없었던 일로 흘려버리고 수교를 정상화하는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는 매국배적망발을 꺼리길 없이 늘어놓으며 온 남조선일본회담》을 기어이 성사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몇푼의 돈에 팔아넘김으로써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원성을 사르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있는것이 바로 제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수척스러운 매국배적의 경력을 가리우고 합리화하려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실적으로 현 남조선당국이 《국정화》를 통해서 수정하는 력사교과서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친일파들의 최상도 민족과 력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단단히 결산하려 하고있다. 침략적인 외세에 아무하여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친일매국노들중에는 이전 《유신》 독재자도 있다. 그가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특등일본인》이 되려고 이름까지 《오카모도 미노루》라는 일본식으로 고치고 일본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쓰며 일본군장교가 되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극악한 친일주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장하는 레로분자로 규정하고있다. 이런 쫓겨빠진 친일매국노들의 력사의폭행위가 그대로 교과서에 담겨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라나는 남조선의 청소년학생들이 일본의 치떨리는 조선지배를 《근대화를 실현시켜준 은혜》로 잘못 인식하게 되고 친일파들의 나라 팔아먹은 죄행이 민족을 위한 의로운 일인것처럼 각인되게 될것이다. 또한 과거의 침략범죄에 대해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 철면피한 일본의 죄악을 가리워주고 달아온 재침야망에 더욱 불을 붙여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이런 엄청난 후과를 끼칠 력사교과서개악을 과연 조선민족의 성원이라면 누가 옳다고 받아들일수 있으며 한치도 허용할수 있겠는가. 지금 남조선의 청소년들까지 거리에 떨쳐나서서 《력사교과서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일본이 력사의곡을 하듯이 따라하는것 같아 격정된다.》, 《옳지 않은 력사는 배우고싶지 않습니다.》라고 웨치며 항의통성을 벌리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친일매국의 최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지울수 없고 용서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이 민족의 치숙는 반일감정에 역행하여 친일파들의 죄상을 합리화해주는 력사교과서 《국정화》를 계속 강행한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다. 일본의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어제날의 친일매국노들을 비호두둔하는자는 오늘날의 친일매국노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김연희



남조선 각계가 반 《정부》 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당국의 력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이 17일 서울에서 광범히 벌어졌다. 《국정교과서반대 청소년행동》이 거리행동을 전개하였다. 서울과 경기도, 대구 등 각지의 청소년들이 서울 종로구에서부터 《정부》 종합청사까지 시위를 벌리면서 《친일, 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정부〉는 력사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 등의 글이 쓰여진 선전물들을 들고 력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력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에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음모가 깔려 있다고 폭로하였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배울수 없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청소년학생들이 힘을 합쳐 력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그들은 선언하였다. 한편 460여개 시민사회, 력사단체들로 구성된 《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웍》과 서울 세종로에서 범국민 집회를 가지었다. 단체 대표들은 규탄발언들을 통해 남조선 곳곳에서



미군 철수 계획을 왜 연장하였는가

10월 15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 철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55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2016년에는 현존병력 9800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교무장조직 탈리반은 대변인을 통하여 오바마의 미군철수연기계획이 너무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의 그 어떤 결정도 아프가니스탄강점군에 대한 탈리반의 항전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강경책동과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탈리반의 반항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의 정세는 오랜 기간 불안정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올해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침략전쟁의 불집을 더뜨린 때로부터 14년이 된다. 2001년 세계를 놀래운 9.11사건이 터진 후 미국은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을 개시하였다. 하늘과 땅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작전들을 개시하여 1개월도 못되는 사이에 탈리반정권을 뒤집어엎은 미국은 이 과정에 탈리반과 알 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미명하에 무고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였다. 지어는 결혼식집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고 반미항전으로 이어졌다. 탈리반과 그와 유사한 그루빠들도 폭력적인 보복조치들을 련이 취하였다.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을 먹을수 있다고 타산하고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 미국은 갈수록 헤어나올수 없는 진퇴에 빠진 신세가 되었다. 2008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현 대통령 오바마는 임기내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종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집권후 자기의 선거공약을 뒤집어엎고 3만 5000여명이던 미군을 10만명으로 늘이는 등 아프가니스탄전쟁을 확대하였으며 수천억US\$를 전쟁비용으로 쏟아부어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악화시켰다. 선거공약을 백지화한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정책은 그대로 반테로전의 공적 대상으로 되었고 자국내인민들의 커다란 우려와 불안만을 자아냈다. 이로부터 오바마는 2014년 5월 2016년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하고 2014년 12월 29일에는 미국력사상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포하는 놀음까지 벌여놓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주요지역들에서 안보상황이 의연 매우 취약》하다고 떠들면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철수계획을 연기하였다. 정세분석가들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장기주둔을 꾀하고있는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리해관계에 따른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중앙아시아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중국과 잇닿아있어 예로부터 《상풍이 쌓인 창고》로, 교통의 중심지로 통해왔다. 현 시기에 들어와 가스배해의 무진장한 원유와 천연가스수송로로도 부각되고있다. 여기에 눈독을 들인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는것이 평론가들의 정설이다. 2001년 9월 18일 당시 미국방장관이었던 람스펠드가 탈리반정권이 저들의 목표로 삼았던 알 카에다지도자 빈 라덴을 설사 넘겨준다 해

《력사쿠데타 쿠데타리니》, 《〈정권〉 물러가라!》

본사기자

본사기자 김웅철

